

'비글돌' 마마무 '고혹적 섹시함으로'

네 번째 미니앨범 '메모리'

“비글돌이라는 말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이번 앨범에는 무게를 많이 실었어요. 항상 재기발랄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희에게 고혹적이고 섹시한 이미지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죠.”(화사)

걸그룹 마마무는 '비글돌'로 통한다. 상당히 많은 활동량으로 실 새 없이 장난을 치는 개(犬) 종인 비글처럼 장난이 넘친다는 밝은 모습에서 비롯됐다.

지난 7일 공개한 네 번째 미니앨범 '메모리(MEMORY)'에서는 대신 '고혹적인 섹시함'을 내세웠다.

마마무 멤버 휘인은 이날 오후 광주동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처음에는 섹시한 것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저희에게도 이런 면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마마무는 '메모리'의 타이틀곡 '데칼코마니' 뮤직비디오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키스 신을 연출하기도 했다.

쑥쓰러워한 멤버들 중에서도 휘인은 “유머러스하고 자유로운 모습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으니 이번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것에도 제약 없이 받고 싶지 않아요”고 말했다.

문별은 자기들이 내세우는 섹시함을 ‘썩 썩 섹시’라고 정의했다. “보통의 요염한 것 말고 건강한 섹시”라는 것이다. “바뀐 콘셉트가 잘 맞아서 다행이에요. 더 노력해서 부족한 부분은 노력으로 채워야겠”이라고 웃었다.

바뀐 콘셉트와 상관 없이 마마무는 인기



걸그룹 마마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새 앨범 '메모리'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를 확인했다. '데칼코마니'는 공개 즉시 엠넷, 지니, 벅스, 네이버 뮤직 등 7곳에서 정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데뷔부터 마마무와 함께 한 작곡가 김도훈이 작업한 '데칼코마니'는 8비트의 록 리듬에 마마무의 솔직한 보컬이 어우러진 미디어 록이다. 어쿠스틱 드럼과 기타가 주를 이룬 사운드에 하모니가 조화를 이뤘다.

마마무는 이에 따라 데뷔곡 Mr.매모

호'를 시작으로 '피아노맨', '음모야예, 난소원들', '데칼코마니'까지 5연속 흥행에 성공했다.

밀들밀들무(밀고 듣는 마마무)의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스윙 재즈 풍의 발라드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등 앨범 다른 수록곡 역시 상위권에 안착했다.

화사는 매번 음원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대해 “부끄럼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며 “다만 시간을 투자하면, 좋아해 주실 거란 믿음이 있다”고 했다.

마마무의 밝은 모습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선에 속하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무게감을 얻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며 “본연의 모습은 유지하되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웃었다.

/뉴시스

대한핸드볼협회, 내일 여자실업 신인 드래프트

대한핸드볼협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 송파구 방이동 SK 핸드볼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2017년 여자실업 핸드볼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드래프트 신청자 중 8명이 청소년과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 선수 출신으로 여는 때보다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4년 제19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 주역으로 활약했던 골키퍼 박재영(한국체대)과 레프트백 조수연(한국체대)이 상위 지명을 받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 골키퍼 박조은(정신여고)과 센터백 김아영(황지정산고)이 지난해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 올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주축으로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희란(백제고·레프트백), 서명지(의정부여고·라이팅), 김수정(한국체대·레프트윙), 김남령(황지정산고·파벳) 등이 대표 출신으로 지명이 유력하다.

올해 드래프트 신청 선수는 한국체대 졸업예정자 5명을 비롯해 총 19명이다.

협회는 지명된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실업선수관리규칙, 도핑방지, 선수인권, 부상관리 등 기본교육과 자기계발, 소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민근기자

2021년까지 레알만 호날두 '마지막 계약은 아닐 것'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2021년까지 뛰게 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가 '이번이 내 마지막 계약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호날두는 7일 밤(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홈구장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재계약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호날두는 하루 전인 지난 6일 레알 마드리드와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까지 팀을 옮기지 않을 경우 2009년 7월부터 12년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만 뛰게 되는 셈이다.

정장 차림에 안경을 끼고 등장한 호날두는 “나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다. 내 인생에서 특별한 순간”이라며 레알 마드리드와의 여정이 계속 이어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내 마지막 계약은 아닐 것이다. 이를 확실히 밝혀두고 싶다”면서 2021년 이후에도 현역으로 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지 언론들은 호날두가 38만5000파운드(약 5억2200만원) 수준의 주급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모든 선수를 통틀어 단연 최고 수준이다.

/김민근기자

성주건설 슬러거 사회인 야구팀, 완주군수배 야구대회 우승

문체부관광부 장관배·전북도지사배·전주시장배 이어 4연속 우승... 전북 생활체육 야구팀 중 최강자 군림

성주건설 슬러거 사회인 야구팀(단장 이성주)이 2016 전주시 주말리그 동호인 야구대회에 이어 '제6회 완주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정상에 등극하며 명실상부한 전북 생활체육 야구팀 중 최강자로 군림했다.

완주군 주최, 완주군야구연합회가 주관한 이번대회는 전국 32개 팀이 참석해 전국 최강의 사회인 야구팀을 가리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대회는 개막식에 박성일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의원 등 수 많은 내빈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전국대회였다.

성주건설 슬러거는 교육청 일선건설등 쟁쟁한 강팀들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북도지사배,

전주시장배에 우승에 이어 출전대회 4연속 우승이었다.

특히 지난 전주시 주말리그 야구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끈 엄영선 최이현 노영철, 장기웅 진문기 조철운, 김정화 김원철, 장범진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며 팀을 우승으로 견인했다.

이성주 단장은 “불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김춘길 회장과 항상 따뜻한 리더십으로 팀을 이끄는 임대훈 감독님,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팀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계속된 우승에 자만하지 않고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 최강의 야구팀으로 군림한 성주건설 슬러거 야구팀의 파죽지세 행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민근기자



SBS 낭만닥터 김사부, 첫 회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한석규가 주연을 맡은 SBS 새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극본 강은경, 연출 유인석)가 첫 방송 만에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올랐다.

8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 1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9.5%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방송된 MBC '캐리어를 끄는 여자'는 8.2%, KBS 2TV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7.5% 시청률로 집계됐다.

'낭만닥터 김사부'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10.7%로 나타났고, 수도권에서 10.5%, 부산에서 10.4%였다.

이 드라마는 지방의 작은 병원 '돌담 병원'을 배경으로 괴짜 천재 의사 김사부(한석규)와 열정 넘치는 젊은 의사 강동주(유연석), '윤서정'(서현진)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한석규·유연석·서현진·진경·임원희·변우민·김민재 등이 출연한다.

/뉴시스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